

-게 되다

결과적으로 ~하게 되다, 상태의 변화

자신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 생긴 변화를 나타냅니다. 자신의 상황을 전부 자기 공으로 돌리면 겸손하지 않게 들릴 수 있어서 한국어에서는 이 표현을 아주 자주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	-게 되다	알다 → 알게 되다
ㄹ 어간은 ㄹ 유지	-게 되다	만들다 → 만들게 됐어요
변화 전달	-게 되었다 / 됐다	일하게 됐어요
미래의 결과	-게 될 거예요	알게 될 거예요
형용사에는	-아/어지다	예뻐지다, 건강해지다
시제를 붙이지 않음	기본 어간만	갔게 됐어요는 틀림

■ 언제 쓰나요

모든 동사 어간에 -게 되다를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, ㄹ도 유지되며, 앞에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 시제는 되다에 붙고, 되었어요는 말할 때 됐어요로 줄어듭니다.

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: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는 '어쩌다 보니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다'는 느낌입니다. 한국에서 일해요라고 하면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, -게 되다를 쓰면 공을 자신이 아니라 상황에 돌립니다.

이런 겸손함 때문에 자기소개나 알림에서 자주 씁니다. 정말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변화에도 씁니다: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.

이 표현은 동사에 붙습니다. 예뻐지다, 건강해지다처럼 형용사의 변화에는 대신 -아/어지다를 씁니다.

■ 예문

- 1 올해부터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.
- 2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.
- 3 처음에는 싫었는데 좋아하게 됐어요.
- 4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요.
- 5 한국 음식도 잘 만들게 됐어요.
- 6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.

■ 비교

-아/어지다
품사에 따라 나뉩니다. 동사에는 -게 되다를, 형용사에는 -아/어지다를 씁니다. '예뻐지다'의 의미로 예쁘게 되다를 쓰는 것은 틀립니다.
가게 됐어요. (가게 되었다) / 예뻐졌어요. (더 예뻐졌다)

단순한 서술
둘 다 문법적으로 맞지만 태도가 다릅니다. -게 되다는 결과를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표현하므로 겸손하게 들립니다.
한국에서 일해요. (한국에서 일한다) /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. (어쩌다 보니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다)

-기로 하다
-기로 하다 는 결정을 강조하고, -게 되다는 상황을 강조합니다.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누가 주도했는지 드러납니다.
가기로 했어요. (가기로 결정했다) / 가게 됐어요. (가게 되었다)

■ 주의

✗ 요즘 날씨가 춥게 됐어요.
○ 요즘 날씨가 추워졌어요.
춥다는 형용사이므로 변화는 -아/어지다로 나타냅니다. -게 되다는 동사에 씁니다.

✗ 한국에 갔게 됐어요.
○ 한국에 가게 됐어요.
시제는 되다에만 붙습니다. 앞의 동사는 기본 어간 형태를 유지합니다.

✗ 제가 회의를 준비하게 했어요. — '결국 내가 준비하게 되었다'는 뜻으로 쓴 경우
○ 제가 회의를 준비하게 됐어요.
-게 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시킨다는 뜻입니다.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는 되다를 씁니다.